

# 보건복지 소식광장

---

국내 보건복지동향

글로벌 소식광장



#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2015년 1월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 ■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닳을 올린다 -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 본격적 제도시행 준비 착수

□ 보건복지부는 1월 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이하 시행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날 복지부 청사에서 오후 1시 40분에 개최된 시행단 현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4개팀(총괄, 제도, 기준, 시스템) 23명으로 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이 자리에서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맞춤형 개편은 올해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15. 6월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 다를 없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던 분들은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76만명 증가하고 (134만명→210만명),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9만원이 증가할(42.3만원→47.2만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① 고혈압 평가>**  
 -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2010년 최초평가 대비 1,018개소 늘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년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와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 중 5,033개 의원에 54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평가정보>고혈압)

**< 주 요 내 용 >**

-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5,176개로, 최초평가(2010년) 대비 1,018개소 증가(24.5% ↑)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증가('10년 284만명 → '14년 365만명)
- 6개월 중 5개월 이상 혈압약 처방받은 환자 83.4%, 지속적인 관리 이루어지고 있음
- 동일성분군 중복,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각각 0.8%p, 1.4%p 감소, 적정 처방 증가

○ 이번에 공개된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은 5,176개소로 2010년 최초 평가(4,158개소) 대비 24.5%(1,018개소) 증가했다.

(단위: 개소, %)

구분	기관수				증감율 (B-A/A)
	'10년 하반기(A)		'14년 상반기(B)		
평가대상 의원수	17,543	(100)	17,739	(100)	1.1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4,158	(23.7)	5,176	(29.2)	24.5

□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13년 유병률<sup>1)</sup>이 27.3%, 고혈압 외래 진료비<sup>2)</sup>는 약 2조 9백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sup>2)</sup>의 6.34%를 차지하였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유병률: 수축기 혈압 ≥140mmhg 이거나 이완기혈압 ≥ 90mmhg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을, 만 30세 이상

2) 외래진료비(2013). 원외처방약품비 포함한 금액.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효과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하여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도록 '10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평가는 '14년 상반기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고혈압을 진료한 20,931개소의 의료기관을 평가하였다.

○ 먼저,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가 '10년 284만 명에서 '14년 365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의료기관 한 곳만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575만 명 중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365만 명, 63.5%를 차지하였다.

- 최초평가 대비 고혈압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은 의원 '10년 6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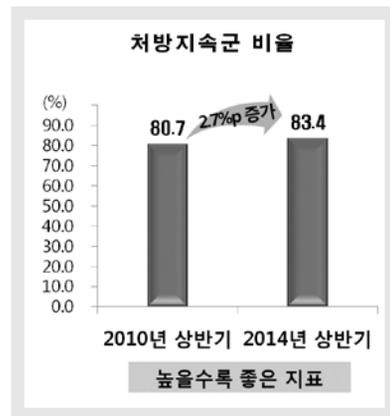
'14년 63.5%로 0.8%p 증가함

상급종합병원 '10년 11.7% → '14년 11.2%로 0.5%p 감소함

□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초평가 대비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한 정도는 증가, 적정하지 않은 처방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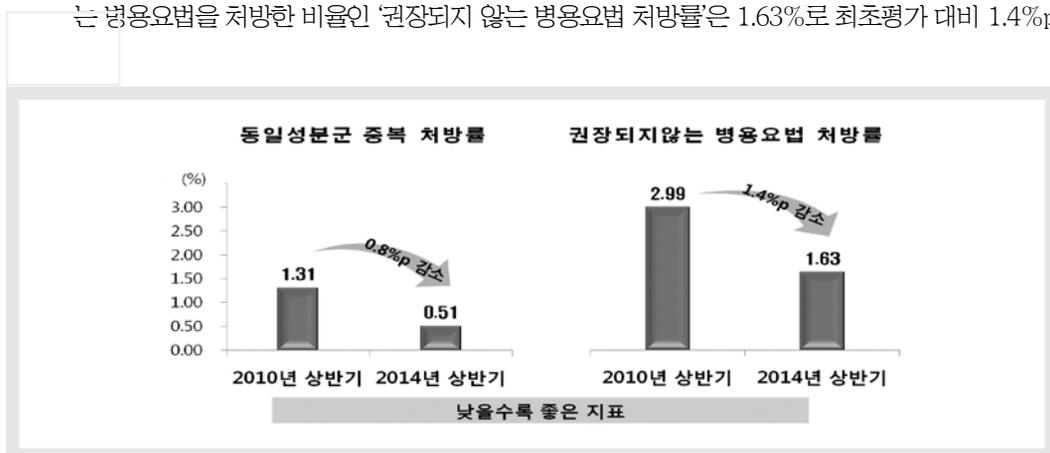
○ 평가대상 기간인 6개월 중 5개월 이상

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83.4%로 최초 평가 대비 2.7%p 증가,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받는 환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한 성분군을 중복 처방한 비율인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0.51%로 최초평가 대비 0.8%p 감소하였고,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없는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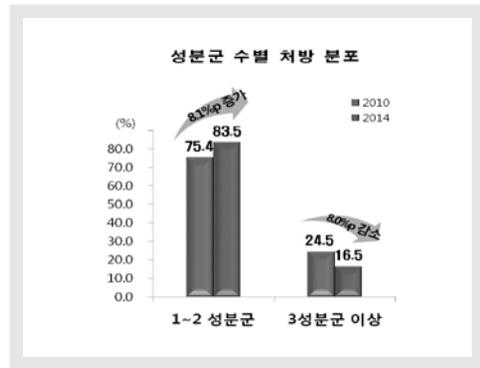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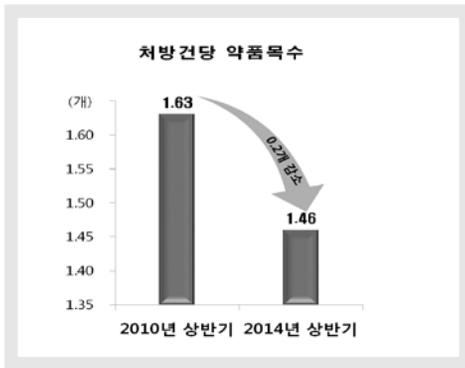
는 병용요법을 처방한 비율인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1.63%로 최초평가 대비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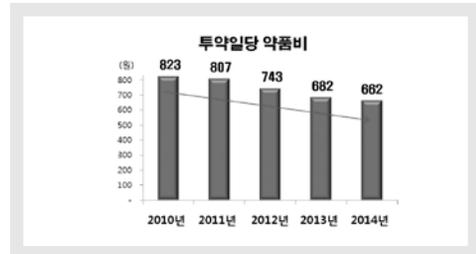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혈압약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혈압약 처방 양상을 살펴보면, 최초평가 대비 약품목수와 성분군수, 혈압약 투약일당 약품비 모두 감소하였다.

-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1.46개로 최초평가 대비 0.2개 감소하였고,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한 성분군수는, 1~2성분군은 증가한 반면, 3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은 16.5%로 최초평가 대비 8.0%p나 감소하였다.



- 혈압약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최초평가 대비 161원 감소하여 662원으로 나타났다.



□ 심사평가원은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및 적절한 자기관리와 약물 복용 등 일상에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바,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하여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아울러, 2015년도 1월부터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14년 7월 진료분부터 평가의 효율성 및 만성질환의 치료 지속성 평가의 필요성 등을 감안 반기별 평가에서 연간 평가로 적용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 환자에게는 의원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재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30%→20%)
- 의원에는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 ② 당뇨병 평가 >

- 심사평가원 당뇨병 평가결과...

외래 방문 평가대상자 189만 명 중 162만 명이 적정 관리 중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일(화) '13년 당뇨병 평가결과와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 3,110개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중 3,010개 의원에 약 34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평가정보 >> 당뇨병

〈 주 요 내 용 〉

- 당뇨병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3,110개소, 최초 평가 대비 569개소 증가(22.39% ↑)
-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계속 늘어(2011년 약 92만 명 → 2013년 약 115만 명)
- 1년 중 324일 이상 당뇨병 약을 처방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는 여전히 낮아 적극적 검사 필요
  - 당화혈색소 검사(75.1%), 지질 검사(72.2%), 안전 검사(41.8%) 시행률

□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은 '11년 첫 평가 이후 꾸준히 늘어, '13년 3,110개소로 2,541개소 대비 22.39% 증가했다.

〈 당뇨병 평가 진료 잘하는 의원 〉

(단위 : 개소, %)

구분	2011년 <sup>1)</sup> (A)	2012년 <sup>2)</sup>	2013년 <sup>3)</sup> (B)	증감률(B-A/A)
평가대상 의원 수	13,361	13,435	13,543	1.36
당뇨병 진료 잘하는 의원 수	2,541	2,985	3,110	22.39

① 2011.1~2011.12 ② 2012.7~2013.6 ③ 2013.7~2014.6의 진료내역으로 당뇨병 적정성 평가 시행

□ 당뇨병은 뇌졸중을 비롯한 심각한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13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 5위 (통계청, 2014)로 높고, '13년 유병률은 11.0%(국민건강영양조사, 2014)이다.

○ 따라서, 꾸준한 약 복용 및 주기적인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은 2011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평가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당뇨병을 진료한 16,315개의 의료기관을 평가하였다.

○ 평가대상자<sup>3)</sup> 중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계속 늘어, '11년 약 92만 명에서 '13년 약 115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sup>4)</sup>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당뇨병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의원은 '11년 59.8%에서 '13년 60.5%로 0.7%p 증가,  
 상급종합병원은 '11년 13.4%에서 '13년 12.2%로 1.2%p 감소하였다.

□ 주요 평가지표는 당뇨병 환자의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의 처방, 처방의 적정성, 합병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등, 4개 영역 7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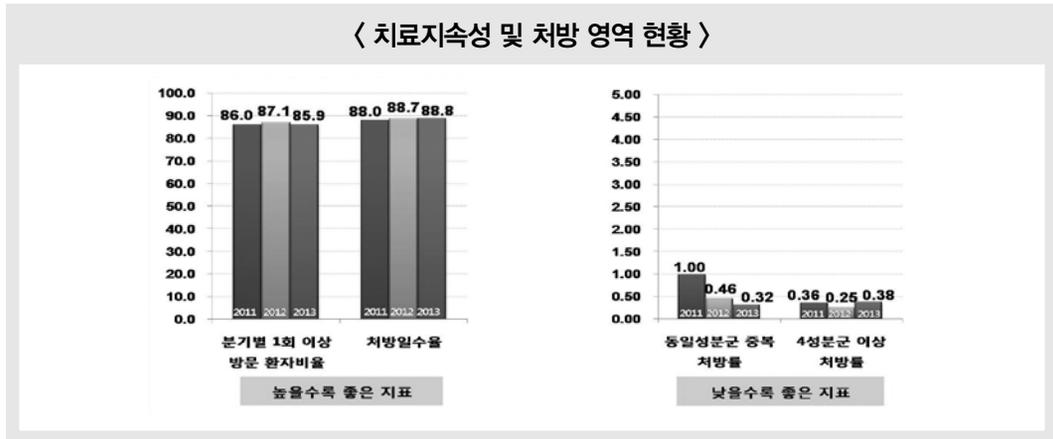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은 85.9%로, 외래 방문 평가대상자<sup>5)</sup> 약 189만 명 중 약 162만 명의 환자가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처방일수율'은 88.8%로 365일 중 324일 이상 경구 당뇨병 약을 꾸준히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당뇨병 진료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에 외래 진료를 받은 기관이 1개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전을 교부받은 기관이 1개인 환자

4)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012.4. 시행)

5) 평가대상자(1,908,731명) 중 평가대상 기간 동안 총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환자(1,888,676명)

○ 또한,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32%로 처방전 1,000건 중에 3.2건, '4성분군 이상 처방률' 0.38%로 처방전 1,000건 중에 3.8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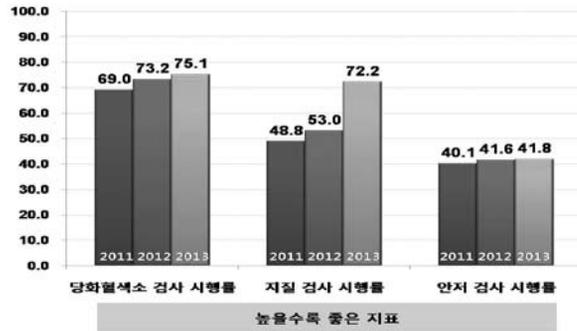
○ 반면,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1%, 지질 검사 시행률 72.2%, 안저 검사 시행률 41.8%로, 이는 최초 평가보다 각각 6.1%p, 23.4%p, 1.7%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아 적극적인 검사 시행이 필요하다.

- 아울러, '13년 평가부터 그 간 의료계에서 요구한 전 국민 대상의 건강검진<sup>6)</sup> 자료를 평가에 연계하여 지질 검사 시행률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2013년 평가부터 지질 검사 시행률 산출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 포함하여 산출

### 〈 검사 영역 현황 〉



□ 심사평가원은 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의 꾸준한 진료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2015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 2014년 7월 진료분평가기부터 진료 잘하는(양호) 의원 선정기준 중,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을 「평균 이상」(상대기준)에서 「75% 이상」(절대기준)으로 적용

7) 2014년 평가: 2014.7 ~ 2015.6의 진료내역으로 당뇨병 적정성 평가 시행 예정